

제네바국제발명·신기술 및 신제품전시회, 우리나라 발명품 대거수상 쾌거 한국 금상 10건, 은상 1건, 특별상 6건 수상



제 39회 제네바 국제발명·신기술 및 신제품전시회(4.6-4.10)에서 우리나라는 발명품 총 17건(금상 10건, 은상 1건, 특별상 6건)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지난 4월 9일 개최된 제네바국제발명전 시상식에서 대성아트론(설용석), 지금강(김식), 솔라코컴퍼니(김현민), 자연사랑(박찬오), 한일의료기(정태윤), 엔유씨전자(김종부), 에이엠에이치인터내셔널(백상덕), 다사랑(양동흠), 이영복, 충주대학교(전창덕)은 금상을, 에이티이엔지(박승태)는 은상을 수상했다.

특히, 솔라코컴퍼니(김현민)은 제네바주정부상, 대성아트론(설용석)은 몰도바 지식재산보호협회상 및 타이페이시장상, 지금강(김식)은 대만발명협회장상, 2010 대학창의발명대회 최우수상인 충주대학교(전창덕)은 이란발명협회장상을 수상하여 금상과 특별상을 동시에 수상하는 겹경사를 가졌다.

우리나라는 대성아트론(설용석), 지금강(김식), 솔라코컴퍼니(김현민), 자연사랑(박찬오), 한일의료기(정태윤), 엔유씨전자(김종부), 에이티이엔지(박승태), 에이엠에이치인터내셔널(백상덕), 다사랑(양동흠), 이영복 등 기업 및 개인발명품 10건과 2010 대학창의발명대회 최우수상 수상자인 충주대학교(전창덕) 대학발명품 1건 등 총 11건이 참가했다.

제네바국제발명전은 세계적 권위의 국제발명전으로, 올해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독일, 스위스, 이태리, 러시아, 프랑스, 루마니아 등 세계 45개국에서 총 1,000여 점의 발명품이 출품됐다.

